보도시점 2025. 4. 14. (월) 12:00 배포 2025. 4. 14.(월) 08:00

참진드기 활동 시작, 조심 또 조심!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참진드기 감시 착수 -

- 4.14.부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하는 참진드기 발생 감시 시작
- 참진드기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임
- 봄철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기피제 사용 등)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 감염 위험이 높은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2025년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호남, 경북, 경남)**와 보건환경연구원**(부산, 인천, 광주, 세종, 전남, 경남, 강원, 전북),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가 협업**하여 전국 **23개 지점**(붙임 1)에서 매월 수행하고 있다. 감시 사업을 통해 수집된 참진드기 밀도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정보는 감염병포탈*을 통해 제공된다.

* http://dportal.kdca.go.kr> 감염병소식 > 간행물·소식지 > 실험소식지 >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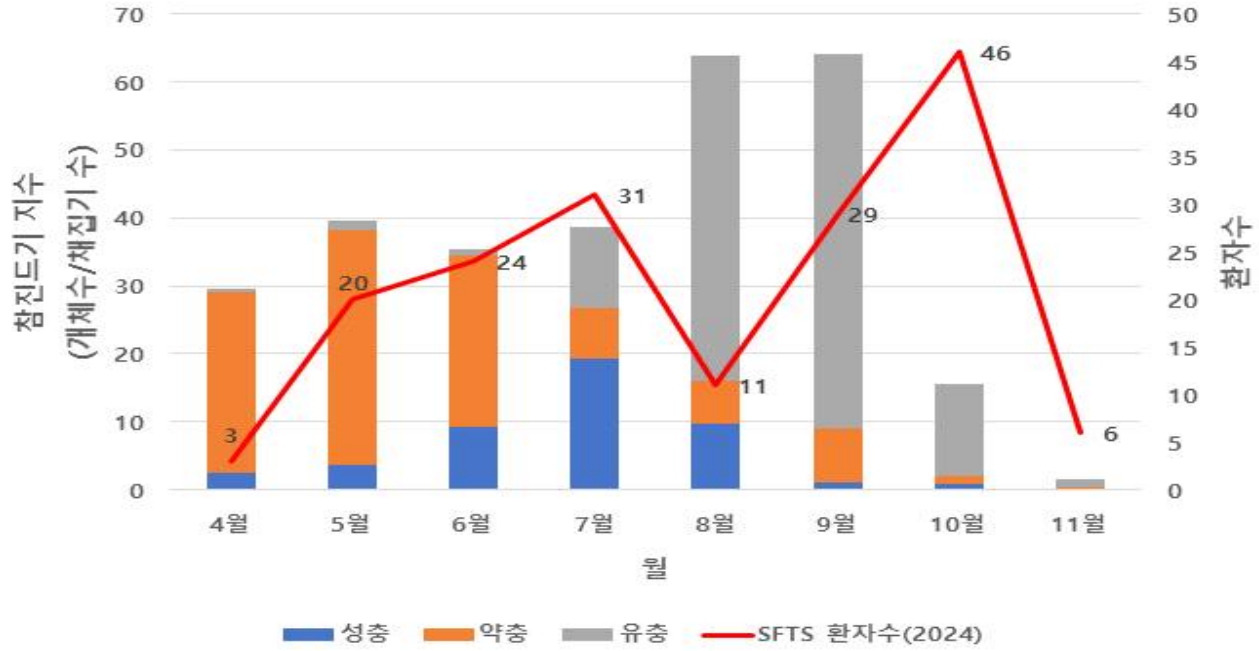


<발생단계별 참진드기 모습>

참진드기는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하여 흡혈하는 습성을 가진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4~5월)**부터 약충이 활동을 시작**하여 **여름철**(6~7월)**에는 성충이 산란을 하고, 가을철**(9~11월)**에는 주로 유충이 발생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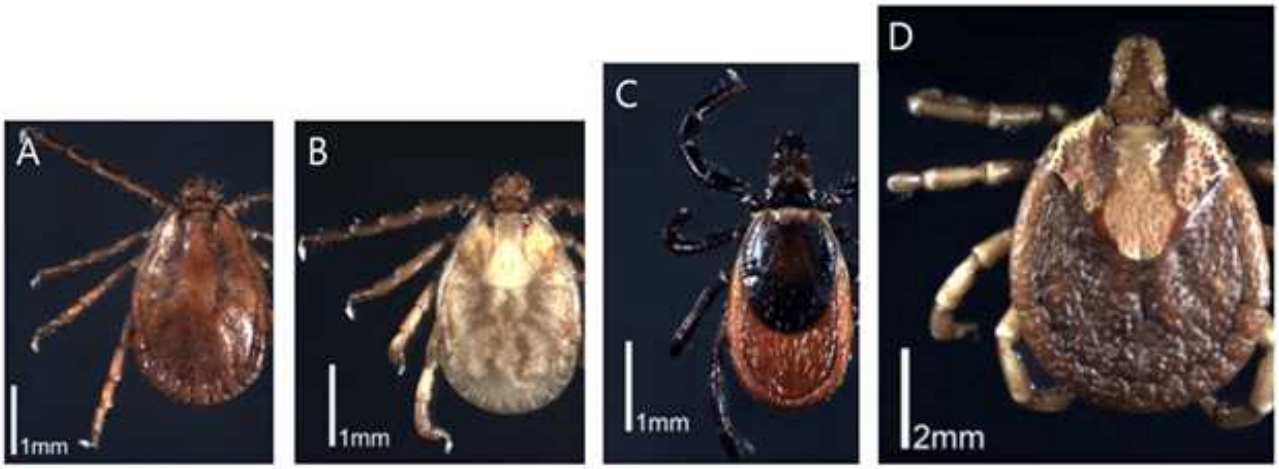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내에서는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 중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한다.

* SFTS 매개 참진드기: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SFTS 매개 참진드기>
(A:작은소피참진드기, B:개피참진드기, C:일본참진드기, D:뭉뚝참진드기)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5~14일 이내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4년까지** 총 2,065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381명이 사망하여 **18.5%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건강한 동행,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봄철 야외활동**으로 인하여 **참진드기와의 접촉 빈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기**, 그리고 **야외활동 후에는 작업복 등을 세탁해주고, 반드시 몸을 씻고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진드기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주둥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제거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진드기 예방수칙 >

①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말기
- 풀밭에서는 30분 이상 앉거나 눕지 말기

② **야외활동 시 긴 옷, 목이 긴 양말, 장갑, 모자 등 착용하기**
-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③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고 진드기 확인하기**
- 목욕 또는 샤워하면서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관찰하기

<붙임> 1. 2025년 SFTS 매개 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
2. SFTS 매개 참진드기 관련 질의응답(Q&A)

담당 부서 <총괄>	감염병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희일 (043-719-8560)
		담당자	연구관	주정원 (043-719-8521)
담당 부서 <협조>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종희 (043-719-7160)
		담당자	연구관	이소담 (043-719-7162)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책임자	과 장	이욱교 (062-221-4140)
		담당자	연구관	왕진숙 (062-221-4148)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정훈 (053-628-0640)
		담당자	연구사	하영란 (053-628-0642)
	경남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책임자	과 장	윤혜선 (051-602-0670)
		담당자	연구관	최명민 (051-602-0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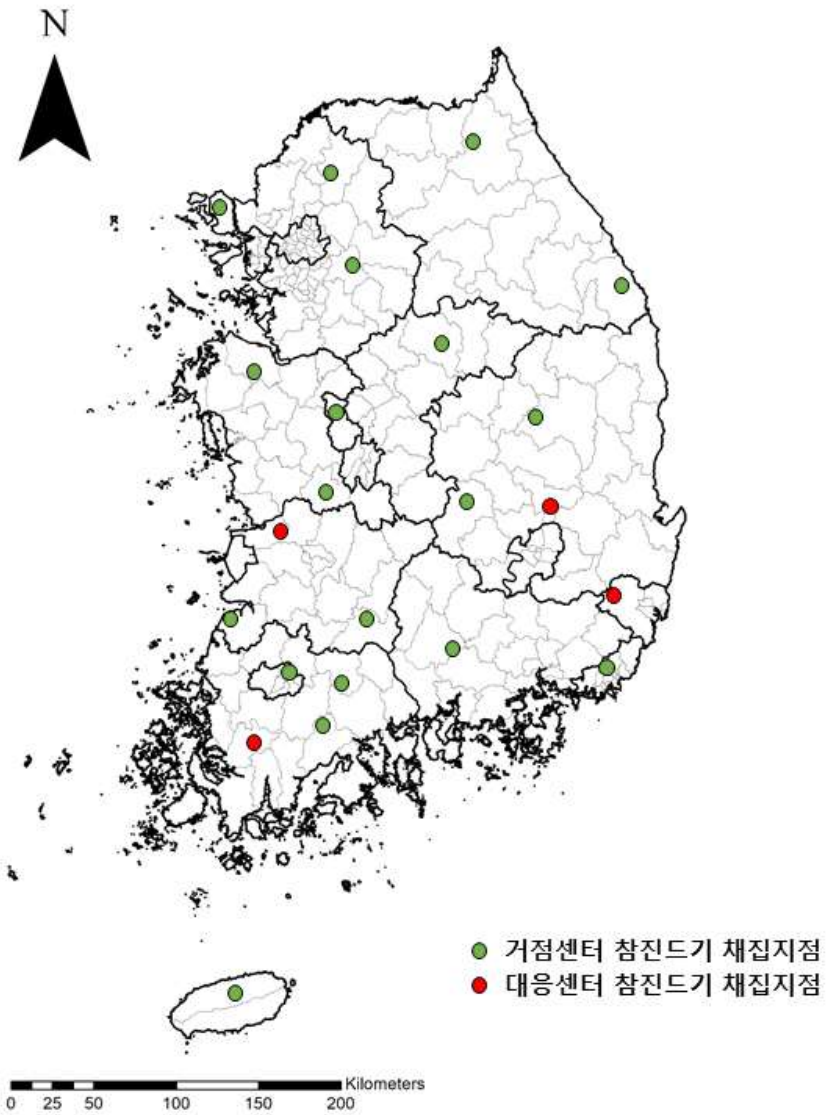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건강한 동행,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

붙임 1 2025년 SFTS 매개 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

□ 전국 23개 지역에서 사람들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4개 환경(무덤, 잡목림, 산길, 초지)에서 매월 참진드기 감시 수행

기관명	세부 기관명	감시 지역	기관명	세부 기관명	감시지역
질병관리청	본청	충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호남권대응센터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영암군	거점센터	삼육대학교	포천시
	경북권대응센터	군위군		인천대학교	광주시
	경남권대응센터	울산광역시		연세대학교	삼척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충남대학교	논산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순천향대학교	당진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곡성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고창군
	전라남도	보성군		경북대학교	김천시
	경상남도	진주시			안동시
				제주대학교	제주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 SFTS 매개 참진드기 관련 질의응답(Q&A)

Q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 참진드기는 주로 어디서 물리나요?

○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존재하다가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부착 대상이 수풀 속을 지나가면 숙주(사람, 야생쥐, 고라니, 멧돼지 등)에 붙어 흡혈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을 날아가 달라붙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진드기가 사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접촉하게 됩니다.

Q2. 진드기에 물렸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무조건 감염되나요?

○ 진드기에 물린다는 것과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에 걸린다는 것을 동일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전국 채집지 채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는 0.5%의 최소 양성률을 보여, 일부 진드기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Q3.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상은 없지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었을지 검사해도 될까요?

○ 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진드기 제거법에 따라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합니다. 이후 14일 동안 발열, 구토, 설사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Q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봄부터 가을까지 주의해야 하며, 야산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다른 감염병의 예방에도 유효합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여 양말 안에 바지단을 넣고, 발을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옷 안으로 진드기가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는 샤워를 하며,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